

흉부외과 수술 후 발생한 일측성 성대마비 환자에서 성대주입의 유용성 : 경구식이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장 현* · 안영진 · 하정훈 · 성명훈 · 김광현 · 권택균

서 론

성대마비는 개흉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이로 흡인은 개흉술을 받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흡인이 있을 경우 경구식을 진행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개흉술 후 발생한 급성 일측성 성대 마비 환자에서 성대주입술의 유용성을 경구식이의 관점에서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흉부외과에서 개흉 수술(식도 수술 제외)을 받은 환자 중, 수술 후 발생한 일측성 성대 마비가 진단 되어, 퇴원하기 전 성대 주입술을 받은 환자를 환자군으로 하였다. 대조군은 성대주입술이 도입되기 전인 2001년 1월에서 2004년 12월까지 개흉 수술 후 일측성 성대마비가 진단된 환자로 하였다. 흡인이 있던 환자들에서 흡인을 4단계로 분류(Miller et al, 1994)하였다. 2단계 이상의 흡인이 있는 환자들은 환자 군에서 2단계군 1명, 3단계군은 7명 이었고, 대조 군에서는 2단계 9명, 3단계 4명

이었고 이들에 대해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결 과

유동식, 고형식 모두에서 흡인을 보이는 흡인 3단계군(환자군 7명, 대조군 4명)에서 기관내관 발판 후 경구식이 시작 기간은 환자군 6.9 ± 2.9 일, 대조군 29.0 ± 16.5 일로 환자 군에서 짧았으며($p=.006$), 수술 후 재원 기간도 환자군 12.1 ± 3.9 일, 대조군 42.3 ± 21.5 일로 환자군에서 짧았다($p=.006$). 또한 환자군 2명, 대조군 10명에서 입원 중 연하곤란식이 필요하였다($p=.029$). 하지만 퇴원 시 연하곤란식이 필요한 경우는 차이가 없었다($p=.590$).

결 론

개흉수술 후 발생한 일측성 성대 마비 환자에서 3단계 이상의 흡인이 있을 경우 성대 주입술은 재원기간을 줄이고, 경구식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흡인이 있는 환자에서 연하 곤란식의 필요를 줄여줄 수 있다.